

■가수 심수봉 씨, 日 아사히 신문에 10·26 비화 인터뷰

박대통령, 그날 저녁 TV 뉴스에 YS 나오자

“정치인도 아닌 X이...” 투덜거리

가수 심수봉(51)씨가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10·26 비화를 공개했다.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씨의 인터뷰 제목은 ‘무궁화의 여인, 가수 심수봉의 반생(半生)’. 무궁화는 자신이 10·26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발표한 신곡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곡이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2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연재됐다. 심 씨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만찬에 세 차례 참석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 첫사랑인 ‘가정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레코드로 일본 노래를 익혔고, 이것이 박대통령과의 첫 대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심씨는 일본 여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노래를 익혔는데 한 레스토랑에서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박종규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의 마음에 들었고 추후 고 박정희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불러갔다고 토로했다. 심씨는 “대통령은 내가 ‘눈물젖은 두만강’ ‘황성옛터’를 부르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일본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슬픈 숲’(가나시이 사케)을 부르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 ‘어, 누가 일본 아이를 데려왔어. 너 일본 사람이냐’며 좋아했다”고 떠올렸다. 심씨는 자작곡 ‘그때 그사람’으로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 가수 데뷔의 꿈을 이룬 것도 박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심씨는 “나는 일본 노래, 특히 ‘엔카(演歌)’를 좋아한다”며 “일본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에는 의문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 또 “식민지시대는 비참했다. 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 타협한 일도 많았죠.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타협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5월 테러를 당했을 때 비명에 간 육영수 여사와 박 대통령 두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박 전 대표에게 “이제 정치는 그만하시라”고 외쳤다고 심 씨는 말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일 궁정동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이 저녁 7시 TV 뉴스를 보다가 의뢰에서 제명당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얼굴이 나오자 “정치인도 아닌 놈이...”라며 투덜댔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이 밖에 10·26 직후 정보기관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나타나 “당신 대단하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용기를 내서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며 “이걸로 영양제라도 사 먹어라”며 용돈을 줬다는 일화도 털어놓았다. 심씨는 또 방송 출연이 금지됐을 때 박대통령 전 총리가 쌀을 보내주고 모일에 불러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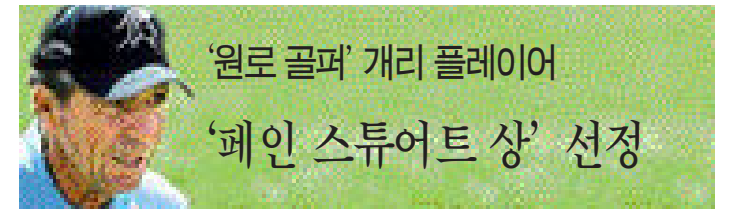
“다 도망갔는데... 당신 대단하다” 전두환 합수부장이 용돈 줬 박근혜 테러, 박정희 부부 떠올라 “정치 그만하시라...” 마음속 외쳐

“7대륙 최고봉 모두 등정”

64세 재미동포 김명준씨 세계 최고령 기록 세우



올해 64세의 재미 한인인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재미한인산악회에 따르면 김명준(64)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20분께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인도네시아령 칼스텐츠(4천884m) 등정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현지에 도착해 일주일만에 정상에 오른 김씨는 이로써 지난 5월19일 등정에 성공한 에베레스트(8천848m)를 포함해 7개 대륙의 최고봉들을 차례로 등정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산악회는 종전 최고령 7대륙 등정자가 일본의 미우라 다케오씨로 되어있지만 미우라씨의 경우 오세아니아 대륙등정 기록을 호주의 코시어스크(2천228m)에서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기록 보유자는 김씨의 차지였다고 덧붙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프로 골퍼 개리 플레이어(70)가 인도주의를 실천한 선수에게 주는 ‘페인 스투어트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9차례나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 요하네스버그에 학교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이 상은 1999년 비행기 사고로 숨진 골퍼 페인 스투어트(미국)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고인이 된 바이런 벨슨을 비롯해 잭 니클로스, 아널드 파머, 벤 크렌쇼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심판에 욕설’ 이천수 “3일간 사회봉사하라” 심판에 대한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이천수(25·울산 현대)가 구단으로부터 사흘 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울산은 2일 오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프로축구 삼성 하우엔 K-리그 2006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 명령을 받은 이천수에게 올 시즌이 끝난 뒤 사흘 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재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 ▲최혁 "조성위원, 전담대 교수

“서구 여성학 접목,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학회장 목포대 윤형숙 교수

“서구 여성학이론의 소개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여성학 패러다임의 모색 등을 통해 여성의 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수립에 소임을 다 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최초의 여성학회장에 3일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윤형숙(54)교수가 선임됐다. 지난 1984년 창립된 여성학회는 현재 8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호주제 폐지와 여성가족부의 신설, 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여성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이론을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윤회장은 “여성학과 여성학회의 외연을 넓히는 일에 주력하고 여타 단체 및 학회와 학술교류를 활성화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성정책의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회장은 특히 “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효율성 있는 학술대회 개최와 여성학회 회원 증가 및 다른 조직과의 공동학술대회 추진 및 월례발표회의 지역개회 등 다섯 가지의 중점 운영방침을 강조했다. 윤회장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에



서 문화인류학박사를 받았으며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문화인류학전공 주임교수와 역사문화학부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여성학회는 ‘한국여성학의 다변화와 지식소통의 과제’라는 주제의 추계학술대회를 3일 목포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지구화시대에 한국여성학의 정체성과 제도화의 문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담아내는 여성학 지식 생산, 중앙과 지방의 소통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김진표 의원〉 〈박범훈 총장〉 〈가수 설운도〉

김진표 의원·박범훈 총장·가수 설운도 등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에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는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로 김진표 의원(열린우리당), 가수 설운도 씨 등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가 패션 디자이너와 언론사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드레서로 뽑은 사람은 이밖에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이찬근 대통령 대표이사, 엄

호열 시사일본어사 대표이사, 엄기영 MBC 이사, 박범훈 중앙대 총장,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황대현 썬사인호텔 대표이사, 방송인 홍수환 씨 등이다. 시상식은 7일 오후 6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34회 한국맞춤양복패션쇼 행사와 함께 열린다.

키와니스 금남클럽 회장에 양광승 광은산업개발 대표



양광승 광은산업개발 대표의 2일 광주시 프라도 호텔에서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금남클럽 신입 회장에 취임했다.



최근 감사 편지를 받은 영광경찰서 김선도 경사·전현중 경장·이재영 경사. (왼쪽부터)

교도소에서 영광경찰서로 온 특별한 편지

“추한 죄인, 인격적으로 대해 주 감사”

최근 영광경찰서 유치장으로 편지 한 장이 배달됐다. 결론에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김모’로 적혀 있는 편지는 ‘유치장에 근무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로 시작된다. 내용은 지난 6월 긴급체포되면서 오토바이 사

고로 인대가 끊어진 채 유치장 신세를 진 자신에게 보름동안 정상적 치료해준 직원들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 편지 2장을 빼곡하게 채웠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불참한 추한 죄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병원에 갈때마다 귀찮은 기색이나 짜푸리는 일 없이 친절하게 대해줘 고마운 마음에 편지를 썼다”고 적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거리 캠페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안태순)는 1일 전기회차 예방 강조기간을 맞아 광주시 북구 전남대 교차로에서 전기 안전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창용(부일자동차 공업사 사장)씨 장남 지훈(신안그룹 홍보실)군 승상헌씨 장녀 연화(대한항공 국제선)양=4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김상만씨 차남 신회군 선무정(전 광주일보 편집 부국장·전 광주 매일 편집국장)씨 장녀 다현양=5일(일) 오후 1시30분 광주 호성웨딩 문화원 2층 해피홀.
▲장욱자씨 장남 민선오군 이상채씨 차녀 근미양=5일(일) 오전 11시40분 삼목웨딩홀 3층 무궁화홀.
▲정현인(광주 KSB 대표)씨 장남 일영군 강남숙씨 장녀 임현숙양=5일(일) 낮 12시30분 노블리아에딩 1층.
▲홍경성(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씨 장남 영훈군 박석

- 한(삼삼소스코 상무)씨 장녀 인영(치과의사)양=5일(일) 낮 12시30분 무등산관광호텔 4층 컨벤션홀.
▲임영근(광주말알회)씨 아들 용군 박동훈(진도 군의원)씨 차녀 숙양=5일(일)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3층.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위탁 및 위탁 가정 상담.351-1206.1207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족목적성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위탁 및 위탁 가정 상담.351-1206.1207

동창·동문회

- ▲북성중 제 33회 동창회(회장 강성두) 월례회=3일(금) 오후 7시 삼희볼나. 376-3233
▲송일고 제 35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4일(토) 오후 6시 센트럴관광호텔. 011-9605-6871
▲진흥고 제 2회 동창회(회장 조갑현) 졸업 30주년 기념행사=4일(토) 오후 5시 무등파크호텔. 011-601-2207
▲제 24회 해남중고 동창회 체육

- 대회=5일(일) 오전 10시 해남우슬경기장. 061-536-2244
▲무안 현경중 총동문(회장 송진웅) 체육대회=5일(일) 모교 운동장. 011-609-7675
▲재광 문태중·동문 체육대회=5일(일) 오전 9시 연초제조창. 011-642-7050
▲송원고 총동문회 기별회장단 월례회=6일(월) 오후 7시 낙지안마당. 381-5559
▲북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대식) 월례회=6일(월) 오후 6시30분 북석원. 232-5224

모임

- ▲광주연인회 월례회=16일(목) 낮 12시 신성식당. 232-0176

종친회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도지원 나주시분원(분원장 리중표) 정기총회=3일(금) 오전 10시30분 나주 삼성식당.
▲재광 장흥위씨 청장년회(회장 위승두) 추계 체육대회=4일(토) 오후 1시 광주남초교. 011-602-9727

향우회

-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 모임=5일(일) 오후 6시 예술영양돌솥밥.266-5566

부음

- ▲이귀남씨 별세 조희철·수용(전 광주시의회 부의장)·귀환·복례·만례시 모친상 양우연씨 빙모상=발인 4일(토)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홍성애씨 별세 심재철·점숙·순희·봉희·옥희·명희씨 모친상 박유은·백종훈·윤길림·이영호씨 빙모상=발인 4일(토) 금오장례식장 201호. 227-4381

- ▲장세환씨 별세 기진·기성·은선씨 부친상 문태호씨 빙부상=발인 4일(토) 그린장례식장 11분향소. 250-4411
▲명석임씨 별세 이두현·동현·정현·금순·금숙·금미·금란씨 모친상 정찬기씨 빙모상=발인 4일(토)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250-4404
▲박응규씨 별세 홍호·춘이·선하·향하·정하·형주씨 부친상 이정주·김대홍·김오남·강상규씨 빙부상=발인 4일(토) 금오장례식장 301호. 227-4382
▲김정임씨 별세 신현식씨 상배 명진·보석씨 모친상=발인 3일(금) 금오장례식장 401호. 227-4383
▲조후금씨 별세 김재현(한국토

- 지공사 사장)·재일·재심·재순씨 모친상 김길조(전 화천기계공사 상무)·이재주(사업)·강기동(여수중 앙초등학교 교사)씨 빙모상=발인 3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손계용씨 별세 용진·영희·광희·병희·창희·동희씨 부친상 조용·김성근씨 빙부상=발인 3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515-4488
▲조석진씨 별세 김진미씨 상배 승훈·충훈씨 부친상=발인 3일(금)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250-4406
▲김복주씨 별세 춘근·춘수·재숙씨 부친상 정태숙씨 빙부상=발인 3일(금)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가족처럼 따뜻한 정성으로... 알귀빈장례식장 광산구 우신동 80m 도로변 (062)943-444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062)521-1100